

중경 02-10

◆제목: 2001년 대중국 직접투자 현황과 향후 전망

(2002. 4.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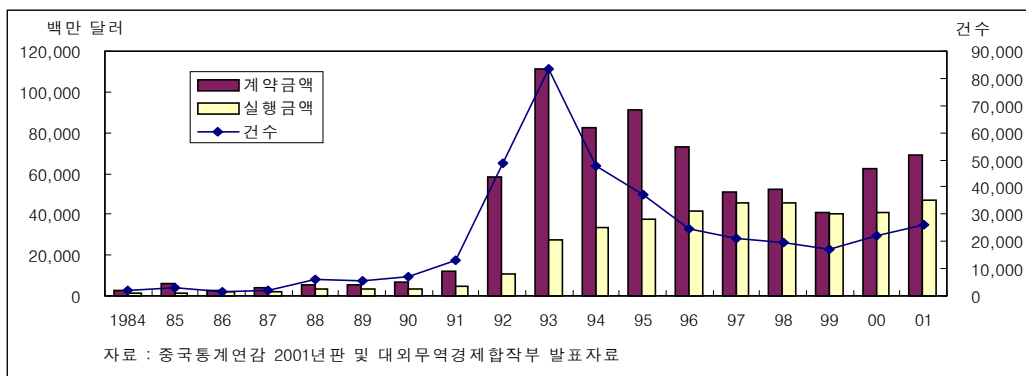
해외경제연구소
국 별 조 사 실

I. 최근 동향 및 배경

1. 최근 동향

□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주춤했던 對중국 외국인직접투자 (FDI) 최근 높은 증가율 지속

○ 2001년 중국의 FDI는 468.8억 달러(투자기준)를 기록, 전년대비 15% 증가하였으며, 금년 1~2월 기간에도 58.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8.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2. 최근의 對중국 FDI 증가 배경

□ WTO 가입 관련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 및 개방 확대

○ 금융, 증권, 유통 등 각종 서비스분야의 확대 개방으로 적극적인 외

자유치 추진

- 기업경영을 제한해 왔던 지역 이기주의, 과도한 준조세 징수 등에 대한 개혁 지속 추진

□ 중국정부의 다양한 외자유치 장려책 시행

- 서비스부문 대외개방 확대
 - 소매업의 외국인투자를 베이징, 상하이 등 일부 대도시에만 허용 하였으나 이를 전국의 省都·직할시·경제특구로 확대 개방
 - 외국계 은행의 위안화 영업 지역제한 완화 및 외국계 보험회사 의 중국 진출 허용
- 기업 자율경영 보장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애로요인이었던 외화수지 균형의무, 로컬 콘텐츠 등의 폐지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율적인 경영을 보장

3. 2001년 주요국의 對중국 FDI 변화

□ 국가·지역별로는 아시아가 크게 증가한 반면, 미주·유럽은 전 년 수준 유지

- 2001년 홍콩, 일본, 대만, 우리나라 등 아시아 주요국의 투자는 증가하였으나 미국과 유럽 등은 전년 수준을 유지
 - 최대 투자국인 홍콩이 2000년 4.9% 감소에서 2001년에는 170.4억 달러를 투자하여 전년대비 7.6% 증가하였음.
 - 홍콩의 대중국 투자 증가는 순수한 홍콩계 자본보다는 홍콩을 매개로 하는 화교 및 다국적기업의 자본이 더욱 많은 것으로 알려짐.
 - 2000년 세계 해외 직접투자에서 대홍콩 유입은 644억 달러로

전체의 5.1%를 차지함으로써 개도국 가운데 홍콩이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투자유치국으로 부상

⇒ 이러한 외국인투자의 상당 부분이 홍콩을 경유 중국에 투자되는 자금으로 알려지고 있음. 따라서 최근 들어 대홍콩 FDI와 홍콩의 對중국 투자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동일한 추세를 보임.

- 한편, 우리나라와 일본은 21.5억 달러, 43.5억 달러로 각각 전년 대비 44.3%, 49.0%의 커다란 증가세를 보임. 이는 2000년 아시아 지역의 경제침체 여파로 對중국 투자가 부진하였던 것과는 크게 대조를 보이고 있음

· 2000년 아시아 5대 對중국 투자국(홍콩, 일본, 대만, 한국, 싱가포르)가운데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증가세를 유지하였음.

○ 유럽 지역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요 투자국인 독일은 12.1억 달러로 16.3% 증가한데 반해 영국은 10.5억 달러로 오히려 9.5% 감소함.

○ 미주지역의 경우, 미국은 44.3억 달러로 전년대비 1.1% 소폭 증가한데 그쳤으나 카리브 연안의 대표적인 조세피난처(tax haven)인 버진 아일랜드는 31.6% 증가한 50.4억 달러를 기록함. 이로써 버진아일랜드는 미국을 제치고, 홍콩에 이은 세계 2위의 對중국 투자국으로 부상함.

- 버진아일랜드 투자의 상당부분은 대만 기업의 투자인 것으로 알려짐. 대만 정부는 자국 산업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중국 투자를 선별적으로 허용해 왔는 바, 대만기업들은 이러한 정부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버진아일랜드 등지를 통한 대중국 진출을 꾀하고 있음. 따라서 2001년 30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집계된 대만의 대중국 투자는 실질적으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

2001년 주요 국별 對중국 FDI 현황

(단위 : 건, 억 달러, %)

	허가건수	비중	허가금액	비중	투자금액	비중
홍콩·마카오	8,466 (10.9)	32.4	211.9 (22.4)	30.6	170.4 (7.6)	36.3
한국	2,909 (13.4)	11.1	34.9 (46.0)	5.0	21.5 (44.3)	4.6
일본	2,109 (30.7)	8.1	54.2 (47.3)	7.8	43.5 (49.0)	9.3
대만	4,214 (35.6)	16.1	69.1 (71.0)	10.0	29.8 (30.1)	6.4
싱가포르	675 (8.5)	2.6	19.8 (△2.5)	2.9	21.4 (△1.4)	4.6
영국	269 (3.1)	1.0	15.2 (83.1)	2.2	10.5 (△9.5)	2.2
독일	280 (△4.4)	1.1	11.7 (△59.7)	1.7	12.1 (16.3)	2.6
버진아일랜드	1,512 (30.7)	5.8	87.7 (16.6)	12.7	50.4 (31.6)	10.8
미국	2,606 (△0.1)	10.0	75.2 (△6.0)	10.9	44.3 (1.1)	9.4
총계	26,140 (17.0)	100.0	691.9 (10.9)	100.0	468.8 (15.2)	100.0

주 : ()은 전년대비 증감률임.
 자료 :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II. 향후 전망과 시사점

□ 향후 對중국 FDI 유입 증가세 지속될 전망

- 국내경제 환경 개선과 대외개방 확대에 힘입어 對중국 FDI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지난해 대중국 투자는 468.8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올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지난 1~2월중 대중국 FDI는 이미 전년 동기대비 28.4% 증가

□ 중국의 FDI 유치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은 더욱 강화될 전망

- 첨단산업 위주의 투자기업 선별 유치정책 지속 추진
- 중국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에 외국인 투자 정책 방향과 외국

인 투자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 부여 및 품목별 외국인 투자 허가 기준이 되는 '외국인투자 지도 방향 규정'과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목록'을 새로이 확정하고 4월부터 시행함

- 이미 중국 내에서 과잉 생산되고 있거나 기술력이 떨어지는 제품의 생산기업은 투자를 제한하는 정책 고수

- 최근 동 정책에 부응하여 다국적기업의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통신, 석유화학 등 대규모 투자가 활발함.

□ 우리기업은 투자 목적과 중국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사전에 치밀한 전략 수립 필요

-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시 중국에서의 경쟁 심화로 투자진출 업종에 대해 보다 면밀한 타당성조사와 함께 기술력, 마케팅, 자금가운데 하나라도 우위를 확보한 뒤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리 기업은 부품산업의 경우 중국이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분야를 중심으로, 완제품 시장의 경우는 고가품 시장 위주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해당 업종에 대한 과잉 투자여부, 경쟁기업과의 기술 및 가격 경쟁력, 판매망 확보에 대한 고려가 판시(關係)를 통한 인맥구축보다 훨씬 중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문의 : 국별조사실 부부장 김주영 ☎ 3779-6647, jykim@koreaexim.go.kr
 차 장 전선준 ☎ 3779-6650, jsjun@koreaexim.go.kr
 대 리 이지연 ☎ 3779-6655, jevi@koreaexim.go.kr